본문은 전통적인 유월절 절경에 참석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시리아인은 나의 아버지를 멸망 시키려 하여 몇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위대하고 강 대한 수많은 민족이 되었다." (유월절 담화 (Passover Haggadah), 1955 맥스웰 하우스 판)

이 본문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유대인 농민들이 매년 예루살렘의 성전에 초실절에 첫 과일을 가져 왔을 때 말하는 것을 구절에서 가져 온 것이다. 이 설화는 신명기 맥락에서 온 설화인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 26:1-11)

시행 예례

초실절의 “계명” (mitzvah; 행위와 동일한 의미임)는 이스라엘의 농부 (및 주변 지역의 일부)가 들로 나가 신진 열매를 발견하고, 주위에 갈대를 묶은 후, "첫 열매"라고 선포했을 때 시작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일곱 종류의 곡식과 과일에만 적용된다 :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및 대추.

농부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토라에서 불리는 “맥추절...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부터 “수정절”까지 성전으로 가져왔다. (출 23:16)

토라 (Torah)는 과일을 얼마나 가져올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랍비들은 작물 중 적어도 1/60 는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과일은 컨테이너에 포장되었다. 부유 한 사람들은 금과 은의 쟁반을 사용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잔디와 갈대 바구니를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손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첫 열매를 장식하기 위해 바구니의 측면에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걸어 놓기도 한다. 바구니는 상번제로 바치고, 손으로 가지고 온 걸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첫 열매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져 왔는가? 각 지역의 주민들은 중앙 마을에 모여 들었으며 도시의 길 가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들은 도시의 집에 들어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체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불순물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였다.

아침에는 지도자가 이렇게 외친다. "자 모두들 일어나라! 일어나서 시온에 이르러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 갑시다!"

황금색으로 코팅 된 뿔이 달린 황소는 첫 열매를 맺은 일곱 종을 대표하는 머리에 올리브 가지의 왕관을 낳아 졌는데 이 황소는 행렬을 이 끈다. 플루트는 예루살렘에 접근 할 때까지 행렬 전에 연주되었다. 온 길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들은 하루에 2/3 만 여행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 차리고 행렬에 합류 할 수 있게 함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자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은 첫 열매를 장식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했다. 그들 중에 신선한 농산물과 말린 농산물이 있으면 신선한 농산물을 맨 위에 놓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성전 회계 원이 예루살렘에서 나가 인사를 나눈다.

행렬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예루살렘아, 네 발 앞에 네 발이 서있다"고 선언하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인들은 서서 인사를 한다. "우리의 형제들아, [누구 누구]의 주민들이여, 우리에게 평화스럽게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성전 산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동반 된 피리 소리를 들으며 나아간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조차도 어깨에 바구니를 놓고 성전 마당까지 나아가며 시편 150 편을 부른다.

그 시점에서 레위 인 합창단은 노래를 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시 30:1)

농부는 바구니를 여전히 어깨에 매었는데, 그는 첫 번째 선언을 한다: "오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 하노라..."

그는 바구니의 가장자리를 잡고, 제사장은 아래에서 그것을 들고 4 방향으로 위아래로 흔들며 선포하기를, "아람 사람이 내 조상을 멸망 시키려고했다..."

그는 첫 번째 열매를 제단의 남서쪽 모서리 근처에 두고 경건하게 절하고 떠난다.

그 첫 열매는 당시에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을 나누었다. 제사장은 과일을 받은 후 값 비싼 용기를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 갈대 나 잔디 바구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과일과 바구니를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룻밤 예루살렘에서 자고 난 후에, 농부는 집으로 자유 스럽게 돌아간다.

오늘의 초실절

지금은 성전이 없으므로, 초실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영적으로 "mitzvah" 지킬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다.

초실절의 본문은 Passover Haggadah 의 근본 부분이 되도록 선정되었으며, Seder plate 는 초실절의 바구니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Seder 경험은 매년 복식 행사의 재연이 된다. 왜 이 텍스트가 선택 되었는가? 그것은 이집트에서 우리의 출애굽에 대한 훌륭하게 간결한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는 Passover Seder 인 것이다.

또한, 초실절의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고맙게 여기는 감사의 마음이다.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hakarot hatov" (좋은 것을 인식)로 알려져 있다. 초실절의 의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지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주요한 후원자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대리인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준다.

랍비들은 "토라 현인에게 “첫 열매”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은 초실절을 행 한 것으로 가져온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하고있다. 실제로, 특히 오순절때에는 “첫 열매”를 그들의 랍비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 관례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과 그 희생에 관해 공부할 때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 치는 것과 맞먹게 생각한다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본문과 초실절에 연결된 주석서, 등을 공부 함으로, 우리의 토라 공부가 공로로 쌓이며 저울을 기울여 메시아가 다시 오시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첫 열매를 가지고, 선포하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시편 30:1)